

제64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제65차 정기총회 준비에 만전



의 장 총회장 진동용 목사 폐회기도 증경총회장 김인규 목사 축 도 증경총회장 배진기 목사 개회기도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 대표기도 부총회장 조원의 목사 사 회 총무 김병목 목사 찬양인도 서기 이인규 목사



교단 제64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3월 21일(월) 오후 1시 총회본부 대성전에서 열려 65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각종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회부를 은혜기운에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조원의 목사의 대표기도, 진동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진동용 목사는 시 1:1-6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삶의 길'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은 복있는 사람의 약인의 죄를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전하고 오직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교단, 온전히 말씀중심의 교단이 됨을 감사드리고 이같은 사역을 감당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배진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순서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의 개회기도 후 의장 진동용 목사의 인도로 열린 2부 회의는 서기 이인규 목사의 회원점명 후 의장의 개회선언, 이인규 목사의 전 회의록 낭독, 보고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 김병목 목사의 총무보고사항으로 2016년 목사고시 결과와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2016학년도 총회신학교, 목회대학원 개강예배, 사이버신학연구원 개강 등의 내용을 보고한 후 회계보고사항으로 교단 재무 김중현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영준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다.

이어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역자전출청원, 교회전출임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폐쇄 청원 등의 사항이 처리되었으며, 원활한 중국선교를 위해 중국지방회를 설립하자는 안건이 인준 통과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오는 5월 16일(월)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개최되는 제65차 정기총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증경총회장 김인규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제64차 총회 임시 임원회, 제65차 정기총회 준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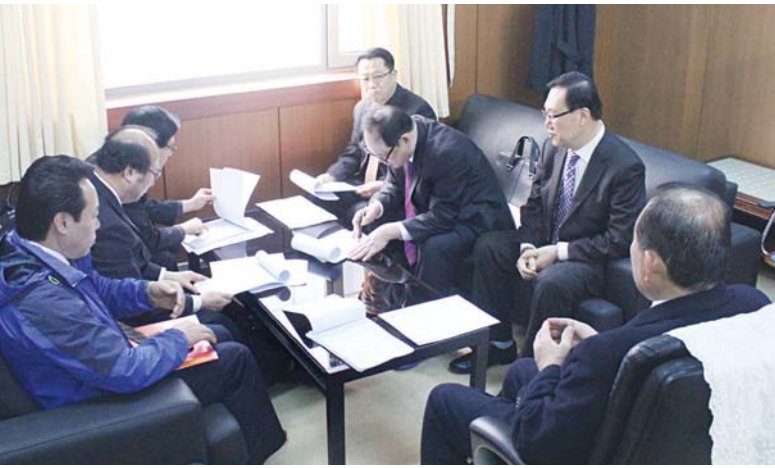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진동용 목사) 총회는 지난 21일(월) 총회장실에서 임시 임원회를 가졌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정기총회와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필요한 각종 준비사항들을 점검하는 한편 지방회 교회간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이를 조정했다.

임원회는 각종 행정처리 사항들을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각종 회부를 처리했다.

한편 지방회 교회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을 조율하고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회장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오는 5월 16일(월) 개최되는 제65차 정기총회의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각종 회부를 은혜 기운에 마쳤다.



푸르초장은
마음의
시냇물



조용목 목사

‘믿음을 가진 사실로 인한 행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 11:1~3)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믿음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 동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움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본문은 믿음을 정의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은 “믿음은 소망을 지향해 주는 토대로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 질 것을 보증해 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재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쉬고 있는 것으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 믿는 대상의 실재를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믿음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신념이나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지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지성과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입지 않고 인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셋째, 예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넷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써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기를 믿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실로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에 또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선진들’이란 히브리어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고 환경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여기며 행동했습니다. 그는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본 적이 없어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여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릅니다. 현재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현재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것같이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무한히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결코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 고회연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평점 목사)는 지난 3월 12일(토) 낮12시 교단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고회연을 맞아 부산 진구 범천동 라온파티패시당에서 고회연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평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정화 목사의 사회, 지방회장 한평점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정기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시 91:14-16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즉’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축하 순서로는 홍현철 목사의 악곡소개, 케익커팅, 선물 및 꽃다발 증정, 광양은혜와진리교회 최형택 목사의 축사, 유봉수 목사의 답사, 고영권 목사의 식사 기도 순으로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고회를 맞은 유봉수 목사를 축하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구국기도회 및 원로목회자 체육대회

4월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평화통일 위해 기도

한국교회원로목회자후원회



한국교회원로목회자후원회는 지난 3월 18일(금) 오전 11시 A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홀에서 오는 4월 14일(목) 오전 9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평화통일 구국기도회 및 한국교회원로목회자 체육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해 오신 원로목회자들을 섬기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한바탕 땀땀이 기도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미숙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한근 목사의

대표기도, 문명원 국장의 성경봉독, 조지위원장 한은수 감독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한목사는 히 12:2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이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강준오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곧바로 기자회견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회원로목회

자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평화통일구국기도회를 갖는다고 밝히고 이는 북핵문제, 정치불안, 동성애법반대 이슬람확산저지, 경제안정, 기독교불신 등 기도해야할 내용이 산적해 있음을 통감하고 내 종아리에 회초리를 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로목회자 체육대회는 한국기독교 130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로 3천여 명의 원로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원로목회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각종 체육행사와 더불어 평화통일기도회, 무료건강검진, 무료영양사진 찍어드리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참석자 모두 함께 합창을 함으로서 체력증진과 하나님께 영광, 인생2막 또 다른 사역의 시작이라는 선포, 원로로서의 자부심으로 원로목회자의 지력을 과시하고 전 세계의 기독교 원로목회자들에게 모범과 본을 보인다.

참가 문의 02)395-1541, 팩스 02)394-9747 이메일 mission987@naver.com

고난주간 서울역 통일광장 기도회

북한동포들의 고통과 북한지하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을 묵상하며



3월 21일 저녁 7시 30분, 고난주간을 맞아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동포들의 고통과 북한지하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을 묵상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고난주간 서울역 통일광장기도회가 촛불기도회로 열렸다.

2011년 10월 31일 이래 매주 월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동포들의 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해 온 통일광장기도연합이음

회 코디네이터)과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이종윤 대표회장, 공동대표: 박순오, 서경석, 손인식, 송기성, 안용운, 이수영, 이용희, 임창호)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통일광장기도회는 현재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전주역 등 40여 곳에서 매주 진행된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에 의하면 북한은

2002년 부터 올해 2016년 까지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보내는 고난주간에 가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속히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연합기도회이다.

북한동포들이 더 이상 김일성·김정일 동상과 초상화 앞에 절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구하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북한 땅 방방곡곡에 피 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증거되고 북한동포들도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선교하는 백성이 되도록 기도했다.

서울지역 통일광장기도회는 복음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에 서울역 광장에서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기도를 드린다.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기술 규탄 회견

선민네트워크, 위안부와 관동학살 기술 및 사과 촉구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목사)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영유권 왜곡 기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규호 목사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의 주장을 기술한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잘못된 일"이라며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로, 이미 1690년대부터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많은 문서와 고지도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하진 대표(대한민국사랑청년단)가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일본은 역사교과서의 '독도는 일본 땅' 하위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일본군 위안부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함께 사죄의 내용을 기술하라"고 촉구했다.

선민네트워크는 이날 "도교서적이 출판한 일본사 교과서에서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다이치학습사 지리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고 새롭게 기술하면서 역사부정과 이웃국가에 대한 영토침략 행위를 자행



하도록 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선린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웃 국가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평화를 깨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400여 년 전인 1690년대 이미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조선'이라 확인했고, 1877년 메이지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

으며, 이후 일본 지도들은 독도를 조선령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독도를 제주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일본에게 독도 영유권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1952년 1월 평화선 선포를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TS기독교TV 제2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당기순이익 18억 2천 만원, 6년 연속 흑자 내

CTS기독교TV는 3월 21일(월) 오전 11시에 CTS멀티미디어센터 11층 컨벤션홀에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갖고 신임 이만우 부회장, 김관상 사장을 선임하고 이를 승인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기감, 전용재 감독(중임), 김정석 목사(신임), 한성일 장로(신임), 김영훈 변호사(신임), 강경철 장로(중임) △통합, 최내화 장로(중임) △합동, 김재호 목사(중임), 옥성석 목사(신임) △기성, 지형은 목사(신임) △기장, 양기영 장로(신임) △기침, 오영택 목사(중임) △고신, 구자우 목사(신임) △구세군, 김동지 사관(신임) △순장, 김일수 목사(신임)이사과 △감사에 루터회 김해철 목사(중임)를 승인했다.

이날 제1부 예배에서는 김진호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무)의 대표기도, 박무용

목사(예정합동, 총회장, 공동대표이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 (롬8:28)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설교자가 축도했다. 제2부 회의는 의장 박무용 목사(공동대표이사)의 사

회아래 회장 강경철 장로의 인사, 고장원 부사장의 회사경영 보고, 2016년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 부회장 및 사장 선임 보고, 감사 김해철 목사가 감사보고를 했다.



필리핀에 군트리기념교회, 복음화 전초기지 마련

예감 기념교회, 국내외 일곱 번째 교회 건립



예수교대한감리회 기념교회(담임 손선영 목사)는 지난 3월 8일 필리핀 탄자니아에 군트리기념교회를 세우고 봉헌식을 가졌다.

지역주민 약3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봉헌예배는 손선영 목사의 마 16:15~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지역 내빈들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5년 4월 착공해 약 11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이밖에 준공된 군트리기념교회는 연건평 80평 규모의 건물로서 다소 규모가 작지만 중요한 복음의 매개체로서 위상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루터대학교, 고난주간 세족예배

루터대학교(총장 김영욱)는 지난 3월 22일,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세족예배를 드리고 성찬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를 인도한 이영호 교목실장은 메시지를 통해 "잠자기시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배를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을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세족식에서는 김영욱 총장을 비롯해 모든 교수들이 참여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말씀을 묵상하는 동시에 사제 간의 정을 돈독

히 했다.

처음에는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자신의 발을 맡긴다는 사실에 세족식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거리낌 없이 양말을 벗고 교수들 앞에 앉아 자신의 발을 맡겼다. 또한 정성껏 물을 부으며 발을 씻기고 기도해주는 교수들의 마음과 그 속에 담긴 스승의 사랑을 느낀 제자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거행된 성찬예식에는 루터대학교 모든 교직원들이 참여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했다.



한국교회 위기, 교육이 대안이다!

글로벌 크리스천 인재 양성 CGS 개교



한국교회 미래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영유아 보육사업 △저출산 문제 해소 △기독교 교

육의 활성화 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의 희망사항은 입시위주와 사교육 중심의 교육방식 보다는 하나님 말씀

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비전을 품고,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꿈꾼다.

◇ 성경적 교육, 성품 교육, 글로벌 교육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한 교육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형 기독교대한학교 Christian Global School(이사장 강경철 '이하CGS')은 3월 21일 정식 개교하여,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적 교육(Biblical Education) △성품 교육(Character Building) △글로벌 교육(Global Education)의 교육기치아래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나사렛성결회, 신임감독에 김영수 목사

복지향상 위한 목회자 연금제도 마련할 것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61차 한국총회를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개최하고 김영수 목사(서울영일교회)를 신임감독에 선출

했다.

김영수 목사는 4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51표 중 41표를 획득해 당선 됐다.

김영수 신임 감독은 당선인사를 통해 "교

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실천에 옮기고, 특히 교단 위상 강화를 위해 내부결속과 더불어 대외적인 연합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감독은 또 "목회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목회자 연금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목회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마지립교회 목회자는 지립할 때까지 총회가 대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또 총회본부 이전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총회본부 이전 추진준비위원회 운영규정안'을 통과시켰다.



월례회 교회와 지방회 부흥 위해 더욱 헌신 다짐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병집 목사)는 지난 3월 8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잠실교회(담임 박영욱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지방회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동성애 반대, 복음을 애국사기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물결을 물라내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편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정화 목사의 사회, 재무 김경옥 목사의 대표기도, 윤해영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한병집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한 목사는 마 16:21-28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회선을 다해 감당하느라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

복했다. 이어 회계 김태주 목사의 헌금기도, 이한나 전도사의 헌금특송, 증경지방회장 박영욱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교회와 지방회의 부흥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정기지방회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 다짐

강원서지방회

강원서지방회(회장 박성윤 목사)는 지난 3월 14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소망교회(담임 최승수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를 결산하며 헌신해준 임원진을 격려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한 뒤 신임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승수 목사의 사회로 서기 김종애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교단을 위해', '지방회를 위해' 임원제 목사, 위관석 목사, 서범석 전도사가 각각 주례를 인도했다.

지방회장 박성윤 목사는 창 39:1-6 말씀

을 본문으로 '형통한 삶이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형통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하며 주님이 함께하심을 보아야하며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한다"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회계 정희자 목사의 헌금기도, 총무 최승수 목사의 인사 및 광고 후 증경 지방회장 권영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회무를 처리한 뒤 신임임원을 선출했다. 신임임원에는 회장 최승수 목사 부회장 정희자 목사 총무 위관석 목사 서기 겸 회계 김종애 목사가 선임되었으며 회의 후 순복음소망교회(담임 최승수 목사)에서 칠월의 유명한 송아회 식당에서 송아회와 매운탕을 섬김으로 회원들 모두가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정기지방회 훈탁한 시대에 밝은 빛 비추는 교회될 것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장수 목사)는 지난 3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순복음목장교회(담임 한승수 목사)에서 13차 정기지방회를 갖고 한 회기동안 헌신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훈탁한 시대에 교회가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교회,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새 임원진을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회장 탁정신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 지방회장 박형남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말씀을 통해 목회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온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전파를 위해 사명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재무 오세준 목사의 헌금기도 후 지방회장 김장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신임원

진을 선출했다. 신임원진에는 지방회장에 김장수 목사 부회장 탁정신 목사 총무 겸 재무에 이경진 목사 서기 겸 회계에 오세준 목사가 각각 선임되었다.

회원들은 순복음목장교회(담임 한승수 목사)에서 정성껏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한 회기동안 서로 섬기는 지방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정기지방회 회장에 신재영 목사, 바른 복음전파 총력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3월 24일(목) 오전 11시 새강천교회(담임 신재영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회장에 신재영 목사를 재선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태전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허만은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회개이며 직전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 목사는 눅 21:33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 있는 목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어서 재무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 지방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국교회)의 예를 감사 기도하고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정기지방회 회무처리에는 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증경지방회장 진영갑 목사(주전양교회)의 기도로 시작하여, 서기 김광동 목사의 회원점명, 지방회장의 개회 선언과 회순통과, 전 회의록 낭독에 이어 임원회 보고와 총무 정진학 목사의 총무 보고와 회계 장동근 목사(순복음예정교회)의 회계보고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모든 회무처리를 마쳤다.

이어진 회장 선출에서는 증경회장들의 요청과 지방회원의 동의로 현 지방회장 신재영 목

사가 재선임되었고, 이어서 임원선출에서는 증경회장들과 지방회원들이 회장에 임원임으로 회장 및 임원선출을 모두 마치고, 한해 동안 지방회 결속과 부흥을 위하여 힘쓰시는 지방회원들의 다짐과 함께 종교당부 청년 수련회 개최를 토의하고 이석호 목사(대구순혜와자비교회)의 기도로 이날 정기지방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어서 자리를 옮겨 새강천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오찬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모든 일정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로 마쳤다.

정기지방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임영광 목사)는 지난 3월 29일(화) 오전 11시 동문순복음교회(담임 정광호 목사)에서 지방회소속 전교역자와 시모들이 함께 모여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은규 목사(선한목자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정광호 목사(동문순복음교회)의 기도, 서기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성경봉독(고전 12:27-31), 지방회 증경회장 엄석서 목사(주성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고전 12:27-31 말씀을 본문으로 '은사중의 은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 구원도, 능력도, 은사도,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될 때 과거의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



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목자가 되어 선 김의 도를 감당하면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 회원의 교회와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정기지방회 회무처리 및 임원 선거를 위하여 통성기도를 했으며 재무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헌금기도, 총무 최은규 목사(선한목자교회)의 광고에 이어 엄석서 목사(주성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는 지방회장 임영광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임용재 목사(산정리순복음교회)의 기도 후 서기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통과,

전회의록 낭독 및 수정, 각부 보고(서기보고, 총무보고, 경조회 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임원선출, 안건 및 기타사항 토의의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용재 목사를 선거위원장으로 하여 치러진 임원선출에서는 회장 정광호 목사 부회장 최은규 목사 총무 김병호 목사 서기 전하세 목사 회계 김바울 목사 재무 임형순 목사 이상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고 임용재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3부 교제시간에는 동문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으로 식사를 하고 회원 간에 교제를 나누며 은혜가운데 정기지방회를 마쳤다.

정기지방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역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장수 목사)는 지난 3월 10일(목) 청주중앙순복음교회(회장 김상용 목사)에서 2016년도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한편 지방회들이 이끌어갈 새 임원진을 선임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병용 목사(아멘순복음교회)의 사회, 부회장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김용 목사(새희망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장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행 4:18-22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베드로가 부족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권리와 장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

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강조하고 "회원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영선 전도사(이목순복음교회), 신건우 전도사(이목순복음교회)의 전도사 임명, 지방회 증경회장 윤경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2부 정기지방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사보고와 회계보고 및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지방회 신임원 선출에 들어가 지방회장에 최동순 목사, 부회장 오병용 목사, 총무 김용 목사, 서기 김경준 목사, 재무 신병설 목사, 회계 민병호 목사를 한 회기 동안 지방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진으로 선출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오찬을 나누는 후 추경장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운동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정기지방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른 목회 전력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정운기 목사)는 지난 3월 17일(목) 오전 11시 논산순복음펜셀교회(담임 박용성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미순 목사(한소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석인원 목사(영조군인교회)의 대표기도 후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양무리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운기 목사는 요일 2:25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확신 가운데 마치고 신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은 김영국 목사, 총무 김홍집 목사 서기 고현기 목사, 재무 신은순 목사가 선출되었다.



이어서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는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의 사회로 서기 석인원 목사의 회원 점명에 이어 회순 통과와 전회의록 낭독, 임원회 보고, 총무보고와 회계보고가 이어져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모든 회무처리를 마치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회원들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엄기설 목사

(은혜와 찬양교회)를 지방회장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1년간 더 봉사하기로 했다.

1년동안 지방회 결속과 부흥을 위하여 힘쓰겠다는 회원들의 다짐과 함께 신임 임원들의 인사로 정기지방회를 모두 마치고 논산순복음펜셀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고 백제군사박물관과 탑정호수를 관광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정기지방회 말씀대로 행하므로 복있는 사람 되길

서울남서지방회

서울남서지방회(회장 김영국 목사)는 지난 3월 17일(목) 오전 11시 구로열린교회(담임 김영국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동안 지방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한 회기를 섬길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는 한편 교회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 맡겨 주신 귀한 사역을 더욱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후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조규서 목사의 대표기도, 김홍집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영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1:1-6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과 악인'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의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하며 특히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김영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이어진 정기지방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신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은 김영국 목사, 총무 김홍집 목사 서기 고현기 목사, 재무 신은순 목사가 선출되었다.

■ 생명의 말씀 ■



신 동 속 목사

· 경기남지방회 중경회장
· 순복음임마누엘교회 담임

이스라엘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잘 것 없는 존재(렐레, 먼지, 지렁이)로 여기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스스로를 잘 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사 41:14 바라지같은 너 아홉아 - 이스라엘백성들의 자화상입니다. 영웅인 다윗도 시 22:6에서 "나는 별레

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민 13장에서도 B.C1450년경 출애굽 후 (13-33)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화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땅을 40일간 정탐한 후 10명의 보고 내용입니다. 1)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즉 우리는 가나안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2)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3) 네피림후손 아낙 자손은 거인-그들은 아주 키가 큰 거인입니다

4) 우리는 대투기와 같다-자신들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삼백여 만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이 확산되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둘째,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 22:5 "그들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했습니다.

사 41:9~10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임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군세에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민 14:6~10에서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민 14:11에도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언제까지 참으랴 나를 원망하는 너희 말이 내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으며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요(로 5:17)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원수들을 멸망 시키는 도구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고후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결사관은 남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시 54:7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내눈이 똑똑히 보게 하였나이다"

롬 8:2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 6:24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갈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론

우리들의 자화상은 바라지와 폐뚜기 같은 자화상이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담대함으로 두려워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크고 작은 대적들을 물리치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동 정

스위스 CSI총회 참석



김순권 목사(예장 통합 중경총회장)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테소니 호텔에서 열리는 CSI(국제 기독교 공동 선교회) 제39차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차 4월 5일 출국한다. CSI 본부 이사로 있는 김 목사는 이번 총회에 서 아침 경건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이윤석 의원, 기독교자유당 입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윤석 의원이 23일 기독교자유당에 전격 입당했다. 중앙감 있는 현역 재선 의원인 이 의원의 가

세로, 기독교자유당은 413총선 원내 진입 목표 달성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한국 교계가 동성애·이슬람 문화 침투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나사렛, 김영수 신임감독 선출



대한기독교나사렛 성결회 제61차 한국총회가 지난 15일~16일 양일간 충남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열려 신임 감독으로 김영수

목사(서울영일교회)를 선출하는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감독 선거는 4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519표 중 414표를 획득한 김영수 목사가 당선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할랄 백지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할랄 관련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최 지사는 24일 강원CBS '시사포커스' 박윤경 임니다(연출 최원순 PD)에 출연해 교계 지도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강원도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데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2014년부터 18억 무슬림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왔다.

제1회 자유대한지킴이선교축제 4월 8일 개최

‘함복에서 제주까지 복음화’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선교세계연맹 주최 신항복음뉴스 세계기독교금주운동부흥사회 주관 제1회 자유대한지킴이선교축제가 오는 4월 8일(금) 오전 11시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17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자유대한지킴이선교축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사회전반에 걸쳐 복음으로 다져진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조속히 이루고 나아가 신장 통치로 열국 가운데 본이 되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데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위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길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구원을 이끌어갈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바른음주문화중앙협의회와 태권도

리더세계선교연맹, 미스바성서신학원 등이 협력한 가운데 예배와 축제가 하나 되는 예술 속의 복음문화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함복에서 제주까지 복음화’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이번 축제에는 태권도시범단의 시범, 태권무워십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함께 참여하는 바른음주문화중앙협의회는 종교 대학 캠퍼스 금주운동과 지자체별 스티커 캠페인운동, 병원케어사역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태권도리더세계선교연맹은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과 연계해 태권도 지도선교사를 양성하여 선교지에 파송하고 연회 태권도선교광장축제를 개최하고 대륙별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태권도를 통한 선교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기독교 정당, 존재의 당위성을 먼저 설파하라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주요 정당들의 공천 잡음이 심각하다. 19대 국회의원직이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런지 우려스럽다. 정책선거는 실종된 지 오래 되었고, 오직 정당 의석 확보에만 혈투를 벌이는 꼴이다. 기존 정당들 눈에는 국민들이 있거나 한지 의심스러운 일들만 만들어 낸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 색채를 띤 정당들의 활동도 눈에 띈다. 기독교 색채를 띤 정당들의 활동은 이미 17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거나, 활동 중인 정당이 3~4개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첫째는 기독교 정당이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먼저 설파하라. 왜 기독교정당이 태

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진지하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기독교 가치관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익도 우선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정책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진정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정당 출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 정당 활동을 하므로 시대에 기여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을 내세워야 한다. 기독교 내에서 신앙과 인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참신한 인물들이 나서야 한다. 신앙인이란 이름만으로 안된다. 능력만 있다면 일반인이다. 신앙과 덕행과 능력을 갖춘 인물들로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정치를 통한 하나님 나라 구현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헌

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분열이 아닌,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이 3~4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본만 걸고 그 각본에 대한 프리미엄을 노리는 것은 또 다른 투기(投機)라는 비난이 들린다. 기독교 역사에 죄인이 될 수 있다. 기독교를 표방하는 여러 당의 출현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조건 없이 기독교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분명한 역사적 사명이라는 목적과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여 먼저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아라. 그렇지 못하면 또 다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지지해 준 유권자들에게 낙심을 안기거나 잃을까 그것이 두렵다. 정치적 함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에서 나온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구현해 내기를 바란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교단 총회장



진동웅 목사

지도교문



김인찬 목사

회장



신재영 목사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 대표교문 |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 중경총회장 |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배진기 목사(안디옥교회)

임종달 목사(전주순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은혜와평강교회)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

| 총회장 | 진동웅 목사(새소망교회)

2016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지도교문 | 김인찬 목사(청신교회)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

정부용 목사(대림벤교회)

| 중경총회장 |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

김희태 목사(간현교회)

| 회장 | 신재영 목사(새김천교회)

| 상임위원 | 신동숙 목사(순복음임마누엘교회)

오송목 목사(천안시복교회)

황용연 목사(은혜와평강교회)

정석현 목사(평강교회)

김임복 목사(순복음무등교회)

백영자 목사(죽동순복음교회)

| 부회장 | 김기진 목사(예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

| 상임총무 | 김건수 목사(순복음예수나라교회)

| 상임부총무 |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천미교회)

김비을 목사(순복음진리교회)

| 사무국장 | 최장식 목사(순복음복원교회)

| 실무총무 |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교회)

신복희 목사(순복음화평교회)

박홍렬 목사(오성사랑교회)

윤상수 목사(진주은평교회)

| 서기 | 성기찬 목사(동울산순복음교회)

| 재무 |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넙교회)

| 회계 | 양은례 목사(창조교회)

| 감사 | 김중연 목사(은혜교회)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

| 회원 |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교회)

이화숙 목사(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

| 준회원 | 정환무 전도사(순복음빛넙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총선 정책제안 /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

한국교회 4.13총선 앞두고 정책제안을 하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발표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고민하는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목소리로 정치권에 정책을 제안했다.

4.13 총선을 위한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 정책제안

전 문

2016년 4.13 총선을 맞이하여 한국교회총연합 네트워크는 한국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그리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주요 기독교의 단체 네트워크로 구성되었으며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한국교회와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을 정리,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정책을 주요정당 입후보자에 제안한다.

1.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정립

1)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체성 확립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체성의 확립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라고 말한다. 국가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굳게 서서 모든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과 약한 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양극화의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한다.

2) 역사정립특별위원회 설치

2015년 가을 한국사회는 역사교과서로 인한 대는 정을 벌였다. 하지만 교과서는 역사논쟁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부는 역사학자들과 관련분야(정치, 경제, 외교, 국방, 종교 등)의 다양한 학자들을 포함하여 역사정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역사편찬작업을 시작하고, 정통성이 있는 역사연구와 대중서적 출판지원, 대중매체를 통한 역사 바로 알리기를 지원해야 한다. 이것을 위한 법 개정과 기금마련을 제안한다.

2. 통일분야

1) 자유민주평화통일의 추구

한민족의 가장 큰 과제는 민족의 통일이다. 그러나 이 통일은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민족이 계급을 뛰어 넘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아울러서 이 통일은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국회 등이 한국교회총연합 네트워크를 통일 준비의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제안한다.

2) 북한이탈주민지원(탈북민사랑마을)센터 확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탈북민을 위한 사랑마을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들로 하여금 민족의 동일성을 갖게 하고,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탈

주민지원(탈북민사랑마을)센터 확대 지원을 제안한다.

3. 문화분야

1) 근대문화 자원법 제정

현재 정부는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류를 비롯한 대중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와 현대대중문화를 연결하는 근대문화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전통문화와 근대문화가 만나면서 형성되었다. 정부는 개항이후 새로 생긴 종교, 교육, 의료, 복지, 시민단체 등이 한국사회에 미친 내용을 정리하여 오늘의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서 근대문화의 유입과정, 전통문화와의 만남, 새로운 변형 등을 보여 주는 근대문화에 대한 발굴, 보존, 유지, 정리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박물관, 연구소, 출판사업, 알기이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문화지원법 제정을 제안한다.

2)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 지원

한국 기독교는 한국 근대역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것은 여가를 떠나서 한국사회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기독교가 근대화,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건국, 민주화, 산업화, 국제화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 발굴, 연구,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산발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 지원을 제안한다.

4. 교육분야

1) 사립학교법 개정 종립학교의 종교활동 및 종교교육명시

현재 교육기본법에는 국공립학교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에 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립종립학교는 해당 종교 이념을 건학정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종립학교의 경우에는 “종교활동과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

2) 산지원/후추침 제도 실시

현재 종교교육 문제는 평준화제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무시하고 제정되었다. 평준화정책의 추경제도로 인해서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 종교교육을 받아야 함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종립학교는 학교의 건학정신을 구현하는 교육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며, 종립학교의 설립이념은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종립학교를 기피하게 한 후에 추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강제로 종교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고, 종립학교는 학교특성을 수용하는 학생들에게만 종교교육을 함으로서 종교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평준화정책이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시행하기를 제안한다.

5. 사회분야

1) 동성애 조장·성적지향 주장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탈동성애역차별금지법

한국 기독교는 우리 사회공동체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동성애 조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아니다. 자녀출산이 없는 의미로 성적지향이라는 말로 생래적 인원으로 주장할 수 없다. 동성애는 여러적인 성애국이며,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남성동성애자의 경우 항문 성관계로 인한 항문피열, 배변조절 불능 등으로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고, 수명이 단축되므로 동성애자는 불행하다. 국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인권을 내세워 인권보도준칙 등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관련성 등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

최소한 일본이나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수준으로 정확한 역학정보를 공개하고, 우리 국민은 자신이 선택하는 성적지향에 얼마나 위험한 생활양식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나 군대는 의무이기 때문에, 결코 동성애를 조정하거나 교육해서는 안되며 군형법 제22조 6항을 적용하여 병영생활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동성애의 자유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이슬람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입국비자 강화 및 무슬림피해 신고센터 운영

현재 테러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IS가 이미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이슬람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비자를 주의 깊게 살펴서 발급해야 한다. 현재 일방적 입국비자 면제국 중 6개국이 이슬람국가들인바, 이들 국가에 대한 입국비자면제는 취소하고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비자발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무슬림에 의해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슬림피해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즉시 추방시키는 입법과 또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발급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3) 수쿠르 면세특별법 반대 및 할랄인증 비용 정부지원 금지

수쿠르는 돈으로, 할랄은 음식으로 사리아 즉 이슬람 율법의 조화를 채우는 일이다.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둘의 공통점은 이슬람 율법의 사리아가 최대의 관건이다. 이슬람의 사리아 금융과 할랄 제도를 받아 들였던 영국은 이슬람 율법대로 재판하는 사리아 법정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통치되어야 하며, 이슬람의 율법이 법위에 있을 수는 결코 없다. 둘 다 객관적인 기준도 아니고, 국제판례도 아니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국가의 경제와

목양 칼럼

문천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호수아교회 담임 목사, 캐나다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M. A.), 한세대학교 목회학석사 졸업 (M. Div.), 호서대학교 신학박사 졸업 (Th. D.),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대학원 과정중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한 이유

(마 26:39)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캐나다에서 온 여동생과 어린 조카가 강릉에 있는 시냇가에 간다고 해서 운전수 역할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전향적인 길자인지라 장거리 운전이 긴장되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생을 위한 일하기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가는 길에 펼쳐지는 설경과 겨울바다를 바라보다 문득 그로부터 약 10년 전에 있었던 동생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그 날, 동생은 돌아간지 아버지 대신 오빠의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제 팔을 잡은 동생의 손과 동생의 손이 얹히지 않은 어린 남매의 그것처럼 아슬했고, 또 연약했습니다. 동생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아마도 오누이는 같은 것을 떠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 이제 아빠가 없으니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해 동생과 조카를 내려주고 - 식사하고 가라는 사돈 어르신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는 - 혼자 바닷가 근처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시부모님들처럼 좋은 분들 없다. 시댁 스트레스 같은 것 받지 말고 두 분께 잘 하고 와.”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동생의 결혼식 때 흘렸던 그 눈물처럼, 동해바다의 잔맛이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기를 누구보다 애써왔던 우리 아버지와 세상에서 가장 애반 이किन 내 조카는 왜 만나지 못했어야 하는가? 아버지께서 5년만 더 사셨어도, 조카가 5년만 일찍 세상에 나왔어도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5년이란 시차가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이런 광고분구가 흘러나왔습니다. “생각대로

!” ‘아! 얼마나 신나는 문구인지. 정말 모든 것이 나의 생각대로 된다면, 아버지와 조카는 5년이란 시간을 극복하고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허황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현실은 ‘생각대로!’ 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광고 역시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식해 ‘생각대로’를 강조한 것입니다. 강릉 앞바다의 식당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 생각대로 된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내 생각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이룬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따른 삶을 살았습니다. 본토를 떠난 일부터 민족의 조상이 되 아버린 일까지, 전부 그의 뜻과는 무관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그것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기에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 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어야 합니다. 서로를 닮은 할아버지와 손자는 왜 만날 수 없었는지, 왜 만날 수 없게 하셨는지 묵시된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믿음 아플 따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은 있습니다. ‘결국 이 이치고 슬픈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아버지와 조카와 나는, 하나님의 뜻의 결론인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작은 믿음이 지금까지도 마음을 이르게 하는 그 날의 슬픔을 달래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그 믿음.

사회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수쿠르도 자금을 차입하며, 담보로 제공했던 영국의 사당에서 사리아 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사당 내 바들이 철거되는 사태를 최근에 목도했다. 정부가 할랄을 표방하며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삼겹살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내 조국에서 곧 바로 하람(허용되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종교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자기 국민을 국가가 차별해서 부정하는 일이 되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여겨지므로 이의 방지 노력을 제안한다.

6. 지역 환경

1) 택지개발촉진법 등 현행 개발억법 반대

재개발지역에서 내뿜기는 주민의 재산상 사실상 개발주체의 임의적 감정평가로 할함에 매입하여 그 돈으로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고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자유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민주적 행위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심용하고 있는 시기보상, 완전보상, 현금보상, 사전보상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힘없는 주민들과 종교시설들을 공공 택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단 철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를 제안한다.

2) **심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 휴일휴무제 폐지화**
월화수목금금금...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시간조지 휴 켜 뛰어넘는 세계 최장시간의 학습노동 시간, 대학간판 을 따기 위한 심 없는 무한경쟁, 이것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처한 현실이다.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인성회복을 위한 힘을 돌려 주기를 촉구하며, 법률의 내용에는 휴일에는 학원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과 학원 심아영업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캠페인의 확산을 통해 의식문화 개선을 것을 제안한다.

3) **신재생애너지 및 에너지 취약층 지원 확대**
파리 당사국회의의 신기후체제에 즈음하여 에너지 절약운동, 신재생애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취약층 지원 및 관련 일자리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청정지역 가평에서 비가림으로 재배해 저온 착즙한

‘운악산포도즙’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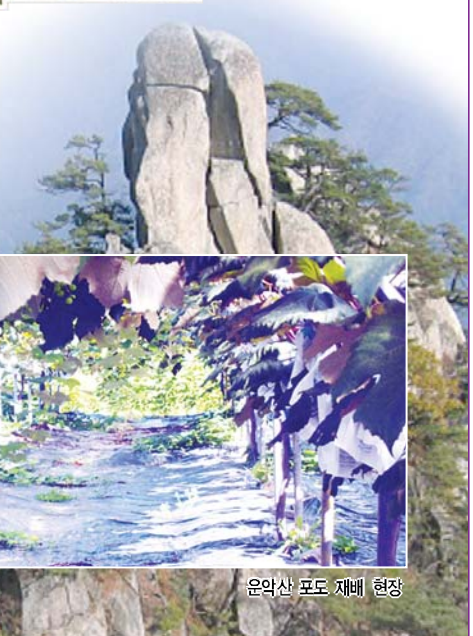
<http://woonaksanpodo.com>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인 가평에서 비가림으로 재배하는 ‘운악산 포도’는 산간 고랭지 포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심하여 당도가 높고 상큼한 맛과 향이 높은 ‘우수한 포도’입니다.

저희 운악산포도작목반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운악산 포도’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자체적으로 설치한 ‘저온착즙기’에서 착즙, 밀봉·포장하여 소비자 분들께서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효능 : 피로회복, 피부미용 ※목회자님·교회·단체 특별우대



유아산포도비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110ml 30봉 1박스(택배비 포함)	110ml 50봉 1박스(택배비 포함)	110ml 30봉 2박스(택배비 포함)	110ml 50봉 2박스(택배비 포함)	110ml 30봉 3박스(택배비 포함)	110ml 50봉 3박스(택배비 포함)	
28,000원	43,000원	50,000원	80,000원	80,000원	120,000원	



운악산 포도 재배 현장

주무관

031-584-3806, 010-2225-3808

평일 :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3시

계좌번호 : 농협 351-0663-7414-03(예금주:이봉가)


운악산 포도즙
 위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15번지
 하판리 영농조합법인
 전화 : 031)584-3806

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 및 한국교회 원로·은퇴목회자 체육대회

■ 일시: 2016년 4월 14일(목) 9시~15시 ■ 장소: 잠실학생체육관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8번 출구)

원로목사님 사랑합니다! 4월 14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만납시다

◆ 선착순 3000명, 부부동반 환영 ◆ (참석하신 원로목회자분께 한하여 교통비와 기념품을 드리며 편안한 복장으로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

설 교	특별 메시지	이 사 장	부대회장	조직위원장	준비위원장	진행위원장	추진위원장	
								
피 종 진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명예총재	오 관 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	임 원 순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	송 용 필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한 은 수 감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재	김 진 옥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재	이 상 형 사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주 태 장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감 사 패				한국 기독교 원로목회자후원회 홍보대사				
								
문 세 광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김 형 대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중앙부회장	정 의 화 의장 대한민국 국회	윤 항 기 목사 대한민국 국회	임 동 진 목사 대한민국 국회	한 인 수 장로 대한민국 국회	정 영 숙 권사 대한민국 국회	최 덕 신 전도사 대한민국 국회	정 주 호 집사 대한민국 국회

정중히 모십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또 한번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존경하는 원로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평화통일 구국기도회]와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북핵문제해결, 정치안정, 동성애반대, 이슬람 확산저지, 경제안정의 국난극복을 위한 중대한 '평화통일 구국기도회'에 동참하시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한국기독교 130년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체육대회'를 통해 기쁨으로 친교하며 교제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셔서 귀한 행사를 빛내주시는 주인공들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명예총재 피종진 목사 이사장 임원순 목사

초청인 공동대회장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이사) 이낙환 목사, 고신 오성환 목사, 기쁜 지 덕 목사, 구세군 이상형 사관, 그리스도 최윤권 목사, 기쁜 김진호 목사, 기쁜 이영규 목사, 기쁜 김동현 목사, 기쁜 신신목 목사, 내셔널 김영택 목사, 내선 최복규 목사, 푸터 김해철 목사, 복서 서상기 목사, 성서교회 정두원 목사, 예원 김원도 목사, 예원 조병창 목사, 예원 최병두 목사, 원동 김동원 목사, 원동 송용필 목사, 한기원 이상모 목사, 한복원 박성훈 목사

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

4월 14일 09시~12시

국난극복을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최덕신, 주찬양성어즈, 웅기장이선교단이
함께 찬양합니다.

체육대회 목적

체육대회 13시~15시

원로목회자 체육대회는 한국기독교 130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3,000여명의 원로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원로목회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각종 체육행사와 더불어 기도회, 무료건강검진 부부기념사진 찍어드리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참석자 모두 함께 합창을 함으로서 체력증진과 하나님께 영광, 인생2막 또 다른 사역의 시작이라는 선포, 원로로서의 자부심과 또한 최대인원 합창과 최고령 합창으로 세계기네스북에 도전하여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저력을 과시하고 전 세계의 기독교 원로목회자들에게 모범과 본을 보인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는 원로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타전 마련과 예배 및 기도회, 신학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원로목회자 회관건립을 목표로 하고있다. 원로목회자 체육대회를 통해 회관건립을 위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여 기금마련의 모티브를 요청한다.



대회 모델 피종진 목사, 이성자 사모(한국기부재단 재능기부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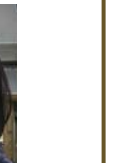


대회장소/잠실학생체육관 전경

참석문의
02
395-1541

추진위원장 이주태 장로
010-2351-6771

준비위원

											
지창웅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진섭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준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영 권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삼숙 권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상철 장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연욱 국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명임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유경선 장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최일규 장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문형봉 장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지은 전도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02-395-1544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 원로목회자후원회

대회 공식 후원기업 모집 02-3394-8877

공동주관 : CSCK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KCPSF 한국기독교연로사후원재단 KCF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KEF 한국기부재단 국제푸른나무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및 찬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부활의 주님 한국교회에 오시옵소서!’ 라는 주제로 열려



이광용 목사

사)한국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사)한국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대표이사 이광용 목사, 이하 한부연)는 지난 3월 27일 부활주일 오후 4시 성북구 삼전동 햇빛중앙교회(담임 김승자 목사)에서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찬양했다.

‘부활의 주님 한국교회에 오시옵소서!’라는 주제 아래 드린 이날 예배는 사환부연 이사 손대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장연 상임회장 김승자 목사의 대표 기도, 한부연 이사 정찬희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합동 보수총회 찬양단의 찬양, 청와대전교TV 대표 분수영

목사의 색소폰연주, 기독교예미 최재창 목사의 찬양, 한부연 이사 고중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고목사는 요 20:2-8 말씀을 본문으로 ‘비극과 승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힘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화된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영생을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들의 자세를 강조했다.

특별기도로 ‘국가와 지도자와 대통령을 위해’, ‘남북통일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한국경제와 사회와 문화발전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한국복음화와 성령으로 하나되기를 위해’, ‘사)예장연과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를 위해’ 서재복 목사, 임은선 목사, 손대영 목사, 한순용 목사, 허석수



목사, 김태지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한부연 이사 이강익 목사의 특강, 한부연 이사 김기형 목사와 김원식 목사의 축사, 예장연 부회

계 김미리 목사의 헌금전송, 한부연 이사 오선미 목

사의 헌금기도, 햇빛중앙교회 김승자 목사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2부 순서로 부활절 특별찬양시간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다.

2부 찬양 순서로 예장연 총무 하태관 목사의 사

회로 유연식 목사의 기도, 고중권 목사와 홍재현 사모의 이중창, 예장합동보수총회 찬양단과 창4동 어린이집 교사들의 찬양, 분수영 목사의 색소폰 연주, 예장합동전국연합총회 임원들의 찬양, 최재창 목사의 찬양, 임은선 목사의 워십, 김미리 목사의 색소폰연주, 예장연 자문위원 이원호 목사의 축도로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및 찬양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의 성령을 찬양하며 은혜가운데 마쳤다.

한국교회의 부활절연합예배는 보수와 진보의 분열 등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같이해 왔으며 최근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 뿌리가 연합이라는 기반 위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대 인류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교회의 연합의 운동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주지방회

제주드림교회 창립5주년 감사예배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3월 26일(토) 오전 11시 서귀포시 제주드림교회(담임 성경경 목사)에서 교회창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안재홍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한영남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김건수 목사는 엡 1:22-23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사 불러서 모아서 택한 무리(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교회공동체는 온전히 예수의 속성을 드러내고 예수의 공생애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나라의 지상 대사관으로서 못 심령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킴으로 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주어 땅에서 끌어주면 하늘에서 드리는 역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파울선교단이 국악찬양에 맞춰 부채춤과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박상태 집사의 기억연주와 이정숙 집사의 특송에 이어 제주드림교회 담임 성경경 목사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교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나팔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다”고 인사했다.

예배 후에 참석자들은 제주드림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애찬을 나누며 진심어린 축하와 함께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방회 순복음복된교회

‘제7회 이웃초청 사랑의 봉사’

광주지방회(회장 김양인 목사) 순복음복된교회(담임 최정식 목사)에서는 지난 3월 27일(주일) 제7회 이웃초청 사랑의 봉사’를 성화리에 진행하고 이웃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부활주일이라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은혜로운 잔치가 됐다. 제7회째를 맞은 이웃초청 사랑의 봉사 잔치는 이제 기다리는 이웃과 복된 교회가 함께하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날도 와이즈먼 무등클럽회원들과 보람아름 그리고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돼지 100근(마리)과 떡과 과일 등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사랑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어진 봉사는 의과대학 교수진을 비롯한 전문의와 원장 등 6명의 의사와 간호사 4명, 약사 1명 변호사 1명과 미용사 2명 등이 오후 5시까지 약 2백명의 이웃과 성도들에게 기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재능을 기부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봉사가 펼쳐졌다.

특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쌀 100kg 100포와 한 옷 등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실천은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교회가 이웃들로부터 멀어져가고 이웃들에 대한 책임과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 신앙을 생활 속에 접목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만져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변화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다.



영남동지방회 정기지방회

본분 지켜 행하는 목회자 다짐

영남동지방회(회장 오경덕 목사)는 지난 3월 22일(화) 오전 11시 경주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제25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새임원진을 선출하는 한편 한 회기동안 각종 회무를 결산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권점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 부회장 이성석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오경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목사는 전 12:13-14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의 본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로서 더욱 자신의 본분을 깊이 인식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목회해야하며, 목회자는 모든 성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지방회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정기지방회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한 회기동안 지방회를 섬기며 헌신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신임원진에는 지방회장에 이성석 목사 부회장에 이동백 목사 총무 권점식 목사 서기 신홍섭 목사 재무 김은수 목사 회계 윤득주 목사 감사 최용운 목사(증경회장) 오경덕 목사(직전회장)를 각각 선임했다.



부산지방회 순복음열방교회

창립 및 취임예배

부산지방회(회장 한명점 목사) 순복음열방교회(담임 김명주 목사)는 지난 3월 14일(월) 오전 11시 동교회 새성전에서 창립 및 취임예배를 드리고 부산지역복음화를 위한 마음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예배는 회계 김태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김경옥 목사의 기도, 총무 조정화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왕상 7:13-22 말씀을 본문으로 ‘두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솔로몬성전의 두 기둥, 아진그가 세우신다고 보아스그 안에 능력이 있다’같이 하나님 나라에 든든한 두 기둥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의 두 기둥과 시나산 언약 위에 세워진 율법(사랑)과 성막(여의)의 두 기둥위에 세워진 순복음 열방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통성기도 후 회장 한명점 목사의 서약 및 처리권부여와 공포로 취임식을 마친 후 박용호 목사(오일순복음교회의 권면과 장신대교수 조성현 목사)와 윤준희 원로목사의 축사, 그리고 사회자의 헌금기도, 이한나 강도사의 특송, 담임목사로 취임한 김명주 목사의 인사말씀과 회장 한명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순복음열방교회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하면서 축하와 교제를 나누었다.



충남지방회 정기지방회

분명한 정체성으로 사명 감당

충남지방회(회장 이흥만 목사)는 지난 3월 22일(화) 오전 11시 신부순복음교회(담임 소영진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동안 헌신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새 임원들을 선출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삼기교회)의 사회로 증경지방회장 김여호 수이 목사(평강순복음교회)의 기도와 증경지방회장 장호순 목사(금강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나눔플러스 홍보대사인 옥숙희 전도사의 오가리나연주 후 지방회장 이흥만 목사(세종순복음교회)는 요 1:18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성령충만하여 예수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하였다.

이어 증경지방회장을 중심으로 특별기도회가 진행되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조원익 목사(추계교회), 교회와 교역자를 위하여 오송욱 목사(원안서복교회)가 기도했다. 원본경 목사(세종중앙순복음교회, 증경지방회장)의 헌금기도와 류승창 목사(순복음아울림교회, 증경지방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에서는 각부 보고와 회무를 처리 임원선출 인준이 있었다. 신임 임원은 회장 소영진 목사(신부순복음교회), 부회장 안종식 목사(공주제일순복음교회), 총무 노우석 목사(평안교회), 서기 윤옥 목사(성신순복음교회), 회계제무 오장록 목사(신일복음교회)가 선출되었다.



인천지방회 정기지방회

성령사역의 중요성 인식 강조

인천지방회(회장 심현일 목사)는 지난 3월 29일(화) 오전 11시 송도순복음교회(담임 반인홍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새임원진을 선출하는 한편 한 회기동안 섬긴 임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1부 예배는 총무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홍영광 목사(은혜와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송준호 목사(순복음사랑교회의)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회장 반인홍 목사(송도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반목사는 요 14:16-24 말씀을 본문으로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마지막 때의 성령사역 특히 어린 청소년에 대한 성령사역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회와 교단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 후 이한숙 목사(서림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감보디아 선교사인 김남근 선교사(뜨남뎌, 네강순복음교회)의 선교보고 시간을 갖고 지방회장 심현일 목사(남도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를 갖기 전에 송도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와 흥어 무침 등의 사랑의 오찬을 함께 하고 2부 정기지방회는 지방회장 심현일 목사의 사회로 이창모 목사의 개회기도, 서기 송준호 목사의 회원절명에 이어 회소통과와 총무와 회계보고가 이어졌다. 모든 회무처리를 마치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 임원으로 회장 홍영광 목사(은혜와사랑교회), 부회장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 총무 송준호 목사(순복음사랑교회), 서기 조성진 목사(충민교회), 재무 김지영 목사(새소망순복음교회), 회계 이한숙 목사(서림순복음교회)를 선출하고 신임 회장의 인사로 정기지방회를 모두 마쳤다.



CTS는 지금

교회학교 부흥 주도 'C-Kids 스쿨' 런칭!

교회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회학교 성장 선도할 것

다문화세대를 세우는 미디어 선교 CTS기독교 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지난 3월 23일 노량진 CTS 멀티미디어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Christian Kids School' (이하 'C-Kids 스쿨')을 새롭게 선보였다.

◇ 대한민국 최고의 교재를 모아 구성한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교회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그동안 크리스천 인재 양성에 기여해온 'CTS교회학교'가 'C-Kids 스쿨'로 개편됐다. 잡된 기독교 교육을 통해 건강한 교회학교 부흥을 비전으로 삼아 전문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도입한 교회학교 프로그램 'C-Kids 스쿨'은 기존 'CTS교회학교'의 교육사역은 물론, 임시의 학습 목표가 아닌 전도와 교회학교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최고의 교육전문 기업이 만든 교육콘텐츠를 철저한 검증에 의해 선별, 최상의 교육 콘텐츠를 모아 철저한 신앙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C-Kids 스쿨'의 대표 프로그램은 △유초등교구수학(매스온매스) △창의 미술(아트교육) △기초 영어(ITK Korea Funics Phonics 1~4) △어린이 성경공부(즐거움성경공부) △말씀성품(베두바로 믿음학교) 등 어린이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비전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서 알차게 구성됐다.

◇ 개설부터 정착까지 각 교회 형편에 따른



맞춤식 교육 컨설팅 진행

'C-Kids 스쿨'은 새롭게 태어난 만큼, 체계되어 가는 교회학교의 재 부흥을 목표로 밀착 교육 선교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회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다수의 교사교육 경험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각 교회학교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Miracle Check)'을 제공해 교회학교 개설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교육 프로그램 설명회 및 후기 실무교육 진행을 통한 실용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회 상황에 맞춘 C-Kids 스쿨 컨셉 선정에서부터 시간표 및 교사 운용 코칭, 학부모 관리, 자체 설명회, 개설 사후 관리까지 개 교회가 처해진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컨설팅이 진행된다. 학습커리큘럼은 1년 40주 한 학기 20주의 통일된 구성으로 마련되었으며, 한 과목 당 6개월 기준 2~3만 원대

의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CTS 감경철 회장은 "CTS교회학교를 운영하며 각 교회 상황을 고려한 양질의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한국교회 내 침체되어 가는 교회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교회부흥을 주도하는 'C-Kids 스쿨'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C-Kids 스쿨 커리큘럼과 운영 시스템을 소개하고 각 콘텐츠별 활용법, 질의응답 및 교재 부스 개별 상담이 가능한 'C-Kids 스쿨 프로그램 설명회'는 4월 2일 (토) 오후 1시 CTS멀티미디어 센터 1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교회학교 사역자, 교역자 및 일반성도 등 교회학교 부흥을 꿈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설명회 사전신청 (02)6333-2525
문자접수 가능 / 참가비 무료



아멘 시문학 출판 기념예배 드려

연 2회 시문학지도 발행할 계획

아멘시문학 출판기념예배가 지난 3월 14일 인천 주안동 소재 함께하는교회(담임 김문순 목사)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김문순 목사 사회로 한성수 목사(진주중앙교회)의 대표기도, 형의재 전도사의 특송, 옥명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옥명길 목사는 시 47-6-7절을 본문으로 한 '지혜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혜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님들은 다 시인이 될 수 있으며, 시인이라는 직함은 전도하기에도 좋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문순 목사는 사전집 증정식에서 "겨울 사이에 작은 풀잎 하나 싹트었다는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지도편 달을 바라며 더 좋은 글을 써서 2집에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다"고 인사했다.

손선영 목사(예감 증정감독)는 축사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시인은 시인이 필요한데 교회의 목사는 시인이 제한되는 것이 늘 아쉽다. 예수님을 더 많이 표현하고 예수님을 더 나타내는 시인들도 축복이 넘치길 바란다"며 축하했다.

이밖에도 이날 순서는 조한우 목사의 축시, 옥명길 목사의 내빈소개, 권성자 목사(엘리펀 선교사)의 축도로 마쳤다.

아멘시문학동인회(회장 송봉원 목사)는 지난 해 11월 5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만물을 아름답게 보면서 영광과 감사의 언어로 복음의 증거가 되자는 목적 아래 창립했으며, 이사장은 회장 송봉원 목사를 비롯한 총무 옥명길 목사(다온교회), 수석부회장 김문순 목사(함께하는교회), 지역 이사 조한우 목사(칠정교회), 편집 이사 한성수 목사(진주중앙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아멘시문학동인회는 기독교신앙에 입각한 시문학의 창작과 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이라는 목적 아래 연 2회 시문학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

CTS라디오JOY 전국 오키나 선교회 창단

뉴미디어 통한 음악선교 사역 의지 다져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랩 라디오방송 CTS라디오JOY(이하 '라디오JOY')는 3월 14일 서울 동작구 CTS 멀티미디어센터 로고스홀에서 '전국 오키나 선교회 창단예배'를 개최했다.

70여 개의 아름다운 오키나 찬양함주로 시작된 본 예배는 찬양할 때 꼭 주님을 바라보세요(에베소서 1:14) 라는 제목으로 CTS 사목 임재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으며, 전국 오키나 선교회는 초대회장에 한국오키나강사협회 홍광일 회장을 위촉하고 발대식을 갖는 등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첫 발걸음을 뒀다.

CTS 감경철 회장은 "이름다운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선교회원분들과 함께 미디어선교에 동역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극히 대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의 마음에 사랑과 평안을 심어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키나와 음악을 통한 세계 복음화 및 미디어 선교 동역을 목적으로 발족된 '라디오JOY 전국 오키나 선교회'는 음악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70여 명의 오키나 강사 및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됐다. 매주 화요일 라디오JOY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홍광일의 맛있는 오키나> 출연을 비롯하여, 향후 △라디오JOY를 통한 선교

사역의 교두보 마련 △미지리 교회 및 해외 선교사와의 결연에 통한 자선연주회 개최 △장애우,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음악교육 지원 △나루된 국가를 위한 자선 연주 및 선교 구호 활동 △교회 내 문화 정체성 확립 및 기독교 문화 선교 등 전국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다양한 사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말씀과 간증, 특강이 담긴 종합채널과 장르별로 골라 듣는 찬양 전문채널 등 실속 있는 콘텐츠로 채워진 라디오JOY는 최근 JOY 예루살렘, JOY 필리핀을 개국하여 기독교 대표 스마트 라디오방송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어디서든 지 시청이 가능한 글로벌 방송으로 파수배와 인종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국 오키나 선교회 기입문의
02-6333-2582

기아대책-경희대, 인성교육 개발 위한 MOU 체결

전문성 살려 인성교육 연구, 개발 협업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성교육센터와 인성교육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기아대책 전용립 부회장, 경희대 지은립 인성교육센터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일선 교육현장에 양질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손잡았다. 이번 협약으로 기아대책과 경희대 인성교육센터는 인성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인적자원 양성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업하게 된다.

경희대 지은립 인성교육센터장은 "기아대책의 인성교육 콘텐츠로 양질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아대책은 전용립 부회장은 "국제구호단체와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학생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기길 기대한다"고



협약했다.

한편 인성교육진흥법이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표로 인성교육을 의무화 한 세계 최초의 법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서교국(국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좀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 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 및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

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가 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 기억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국 국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군선교국 차장 김상기 목사 (010-9040-4562)

보내실 곳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905
e편한세상 103/801

시리아 난민들과 함께하는 청년들

현지 어린이가 작품으로 '찾아가는 시리아 소망상자 전시회' 개최



2015년 9월 2일 아침 터키 해변으로 밀려온 3살짜리 시리아 꼬마의 사진 사진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그동안 난민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시리아 북부 출신의 예이만 쿠르디, 내전을 피해 온 가족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 비리를 간직했지만 보트가 뒤집혀 다섯 살 형,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소수의 한국 젊은이들이 뜻을 모아 소망을 담기 시작했다.

'한국아트미션NGO'(대표 함기훈)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그때부터 전쟁과 재난과 기근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하다 시작하게 된 것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능을 가지고 몸으로, 정신으로 나누는 삶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말하는 함 대표는 동단계가 예술교육 뿐 아니라 전시와 공연을 통해 소통하며 선교 사역을 실시하는 단체인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뜻을 모은 지 3개월여 만에 첫 사업으로 2015년 12월 14일 ~ 2016년 1월 4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J국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콘서트, 미술교실, 겨울용품 전달사역을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당시 현지에서 만난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이 미술교실 시간에 그린 그림(약 30점)을 들여와 한국교회에서 전시회를 시작하였다.

'찾아가는 시리아 소망상자 전시회'로 명명된 본 전시회는 시리아 난민들의 현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그들



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과 함께 작품에 담겨있는 그들의 소망인 '귀향'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뜻에서 기획되었으며 그 첫 번째 전시회가 3월 13일(주일) 오전11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나다공동체(대표 김하영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문화선교주일예배를 겸해 가진 이날 전시회는 말씀과 찬양, 그림전시 및 다류영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깊은 감동과 함께 시리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난민들의 힘든 삶의 여정이 속히 그쳐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본 전시회는 이날 나다공동체교회를 시작으로 강서원전교회, 신촌우리교회 등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로 전시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9월초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던 선 신청한 곳부터 1일이나 1주일 단위로 전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아트미션NGO'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일정으로 J국과 L국에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아트스쿨 및 크리스마스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참하실 분들이나 교회의 신청과 함께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단체 관계자는 전시회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리아 난민 아이들 그림 약 30여 점 전시와 25분 분량의 다류영상을 상영하고, 염서를 증정할 예정이라며, 전시회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홈페이지(www.kamngo.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메일(bluesky-1017@hanmail.net)로 보낸 후 연락(010-6852-6112)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비가 오는 날에도 전도는 계속 된다”

오늘은 자양동에 있는 옥토 만나교회에서 전도하는 날이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점심 때가 지났는데도 비가 그칠 것 같지 않다. 예전 같으면 이런 날은 전도하러 가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박영수 목사는 비 오는 날에도 전도한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기에 용기를 얻어 전도하러 나왔다. 우산 속에서도 전도 결실을 맺은 세트전도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몇 분의 목회자들이 와 있었다. 비가 오지만 기도하고 전도하러 현장에 갔었는데 우산을 쓰고서도 전도를 열심히 했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12명 이상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 주소, 가족 이름 등을 순순히 적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이름을 적어준 분 중에는 충청도 예산에서 살다가 어제 동네로 이사온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아예 교회까지 따라 올라와서 기도를 받고 간식으로 김밥과 차도 마시며 대화도 하다가 주일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기도 했다.

지난 2주 전에도 할머니 한분이 이렇게 교회까지 올라 오셔서 아들과 같이 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오늘도 또 이런 분이 전도 되어서 너무 기뻐했다. 박영수 목사는 우리가 간식 먹는 시간에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오늘 마치는 날이라며 죽을 가지고 와서 먹는 모습을 보니 그 전도의 열정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처음 세트전도를 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많이 놀랐다.

2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아주 쉽게 영접을 시키고 순순히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준 분들을 보며 이것이 바로 능력전도로구나 하며 감격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부럽기도 하고 많은 도전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런 전도를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작년 1년 내내 전도의 날을 정하고 전도했지만 4명 정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온 것이 전부였다.

이름 적어온 그분들을 열심히 찾아 다녔지만 그분들을 등록 시키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했고 나 자신에 대한 죄의함과 무능함에 절망감마저 느끼기도 했다. 전도사 때는 그래도 전도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으며 일했는데 정작 목회를 시작하고는 너무나 전도가 힘들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자양동 옥토 만나교회 성가서 목사의 소개로 세트전도를 알게 되면서 부터 무척 바빠졌다. 전도 훈련 받은 다음날 나도 한번 세트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해 보았는데 한 분이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 주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 후에 전도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공원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새해 들어서 약 40명 정도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오게 되었고 그 분들 중에 다섯 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 성도가 되었고 이번 주에는 19명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렸다.

요즘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노방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이름들을 적어 올 수 있고 지금 교회출석은 계속 매주마다 문자와 편지와 방문 등을 통하여 관계를 맺어 가며 공원에 나가 전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두 분이 교회 오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그런데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처음에는 한 두 명 정도 이름을 받아왔는데 어제는 일곱 분을 영접기도 시켰고 그분 중에 세 분은 주소 이름 전화번호까지 확실하게 적어 주었다.

이렇게 점점 나이에 감을 보며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께 감사할 뿐이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이름순 목사 서울비전교회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군내에서도 이슬람 대응책 마련해야

‘제3회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미래군선교네트워크(이사장 김정원 목사)는 군내에서도 이슬람 확산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고 이 같은 상황에 심각성을 느끼고, 군선교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목) 국방부내 육군회관에서 ‘제3회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슬람 종교의 군내 유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군선교 사역자 150여 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이사장 김정원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슬람 문제가 한국 내 곳곳에 깊숙이 침투되어 오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군선교 현장에도 그 심각성이 크다”고 전하고 “이 세미나가 군선교사 역자들이 이슬람교를 제대로 알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도전받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이사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는 “시대적상황을 바로 직시하고 이를 저절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말씀과 기도로 복음에 반한 그 무엇도 침투할 수 없도록 깨어 기도하는 민음의 사명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60만 군장병 중 비종교인은 52%, 종교인은 48%이며, 종교인 중 기독교 신자는 27.6%, 천주교 신자는 7.3%, 불교 신자는 13.1%로 파악된다. 2012년 12월 조사한 군내 종교별 신자 현황에 따르면 이슬람 신자는 16명으로, 아직 극히 적은 수치만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는 총 20만 8천 명(초등학교생 6만 283명, 중학생 1만 3865명, 고등학생 8388명, 나머지는 미취학 아동)이다.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중 무슬림들도 포함돼 있어, 군내 이슬람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FIM국제선교회 대표 유해석 선교사는 “이슬람의 실제를 주제로한 첫 강의에서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와의 신학적 차이점, 교회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이유로 다문화사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에 의한 다산·결혼·개종으로 이미 이슬람화된 유럽의 경우를 보고 이질적인 문화 및 이슬람 문화와의 다문화화를 제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솔트플랜, 한국교회 발전과 국내선교 돕는다

미자립교회 자립 위해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



2012년 처음 실시한 미자립교회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솔트 플랜 SALT PLAN>은 프로젝트 기간 중 약 30%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많은 교회들이 자립을 하며 성공적인 목회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광림교회는 한국교회의 발전과 국내선교의 일환으로 솔트 플랜을 지속하고자 결정하고 지난 2월 19일 <솔트 플랜 2기 개회예배>를 광림사회봉사관에서 드렸다.

이날 누기복을 13장 6-9월로 말씀을 전한 김정석 담임목사는 “무화과나무는 자주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나무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나온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 주인이 짖어 버리라고 한다. 이에

하인이 한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며 자신이 잘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주인을 설득한다. 솔트 플랜에는 이런 존재의 가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광림교회 목회를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다. 광림교회 목회에 접목하여 여러분의 목회에 열매를 맺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솔트 플랜에서 새롭게 은혜를 체험하길 바란다. 둘째,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란다. 이번 2기 교회들은 광림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다. 모두 가능성을 보고 뽑았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는다. 셋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을 믿길 바란다. 이 기회가 여러분 교회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번 솔트 플랜 2기는 약 200여 개의 교회들이 지원 가운데 공정한 심사를 거쳐 30개 교회가 선정되었다. 이들 30개 교회는 앞으로 2년간 매월 100만원(현 1200만원)씩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실천목회세미나(10회), 해외서약초청세미나(1회), 영국웨슬리 유적지 순례(1회), 평신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전도와 심방, 속회, 교회학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 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❶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❷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❸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 · 성형 · 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 색소클리닉 2. 여드름클리닉 3. 흉터클리닉 4. 비만클리닉

5. 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 · 수 · 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여교역자국 춘계 성령충만 수련회

시대적 혼돈을 물리치는 것은 오직 성경말씀 뿐

‘이 세대를 본 받지 말라’ (롬 12:1-2)라는 주제아래 열려

강사



특강1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특강2
조남영 목사
경기중앙지방회 중경회장

순서



2부 사회
신동숙 목사
여교역자국 자문



1부 기도
김효신 목사
여교역자국 차장



2부 기도
한순남 목사
여교역자국 홍보부장



2부 헌금기도
최영희 목사
여교역자국 봉사부장



3부 사회
조은주 목사
여교역자국 선교부장



3부 기도
김종애 목사
여교역자국 봉사부장



탁정신 목사
여교역자국 국장

2016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국장 탁정신 목사) 춘계 성령충만 수련회가 지난 3월 28일 (월) 은혜와진리교회 인양성전에서 열려 마지막 때 혼란한 시대적 혼돈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끝까지의 복음전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세대를 본 받지 말라’ (롬 12:1-2)라는 주제아래 열린 이날 수련회는 특강1, 특강2 성령충만 기도회 시간을 갖고 특강1 시간은 여교역자국장 탁정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차장 김효신 목사의 기도, 온선트리오의 특별연주,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고후 5:17, 고전 2:13-14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분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배격하며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 여목회자들이 될 것”을 당부한 뒤 “거룩과 명예, 진실과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나타내 보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3H(거룩, 명예, 진실과 정직)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오찬 후 특강2 시간은 여교역자국 자문 신동숙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홍보부장 한순남 목사의 기도, 교단 경기

중앙지방회 중경지방회회장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시 84:10 말씀을 본문으로 ‘작은 큰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 천하만물과 구원의 예수님을 주시고.. 그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오직 진리인 성경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지만 하나 되는 모습, 물고기 두마리와 떡 다섯덩어리 비록 작지만 가지고 있는 내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적

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 힘쓰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행사부장 최영희 목사의 헌금기도 순복음진리교회 찬양팀의 찬양송, 조남영 목사의 축도로 특강2 시간을 마치고 3부 성령충만 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3부 성령충만 기도회 시간에는 선교부장 조은주 목사의 사회, 봉사부장 김종애 목사의 기도, 여교역자국장 탁정신 목사의 말씀준거 순으로 이어졌다. 여교역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발전,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학교폭력예방 중점 ... 교실에서 희망을

월드비전,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실시

2011년 말, 대구에서 친구의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2012년 초, 전국 12개 지역에서 모인 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즐거운 교실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기획했다.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지난 21일, 올해로 5화제를 맞는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급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캠페인 동영상을 보고 캠페인송과 플래시몹 활동을 연습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상을 올리는 미션을 수행하면 참여할 수 있다.

매주 동영상우수작을 선정하여 오리온에서 특별 제작한 초대형스낵박스를 30팀에게, 미스터피자 교환권을 30팀에게 발송한다.

또한 참여소감을 남긴 참여자 중 매주 30명씩을 추천하여 미래엔 도서도 증정한다.

특히, 올해에는 '같이 놀자'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제1차(2015~2019년)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놀이와 여가 권리를 지키는 정책 마련에 근거하고, 대한민국 아동 여가, 문화, 오락 즐길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 필요하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놀이를 경험하며 긍정적 교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스쿨어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5-6월



중 캠페인 홍보대사인 '보노하니' 및 월드비전 홍보대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함께 플래시몹을 하고 선물도 전달한다.

4월 11일부터 '교실에서 찾은 희망'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학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5주년을 맞이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함께 캠페인 효과성 연구를 진행하여 10월 중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월드비전 전영순 국내사업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놀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아동정책 기본 계획이 세워졌다. 놀이를 통한 또래 문화 속에 작은 사회가 있고, 상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놀이를 통해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전국 총 1234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했으며, 반 전체가 다 함께 협력하여 캠페인송을 배우고 플래시몹 동작을 연습하는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방법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제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 콘텐츠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월드비전은 학교폭력예방에 중점을 두어,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한 아동권리정책포럼, 월드비전아동총회 등을 통해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나사렛대, 제7대 임승안 총장 취임식 ... 발전방향 제시

4년간 나사렛대학교 총장직 수행, 재활복지특성화 강화 역점

나사렛대학교 제7대 임승안 총장 취임식이 지난 3월 16일(수) 오전 11시 교내 경전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임승안 총장은 지난 1월 15일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이사회에서 나사렛대 제7대 총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는 2020년 2월 29일까지 4년간 나사렛대

학교 제7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이영식 이사장, 국제 나사렛성결회총회 데이빗 그레이브스 중앙감독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 동문, 교단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임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임승안 총장은 취임사에서 "오늘날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위기상황이다.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지역민, 나사렛 교단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교육의 병행성, 재정확충 정책성 회복을 통해 대학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재활복지 특성과 강화 등 4대 중점 강화 영역을 통해 나사렛 3.0 시대의 발전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임 총장은 1994년부터 나사렛대 신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실장·기획실장·교무처장·신학대학원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제4·5대 총장에 이어 7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오목 목사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일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기독교 장묘문화에 부는 신선한 바람!!

1. 기독교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 최근 화장률의 증가(79.6%)로 각 종교단체에서 장례문화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 타 종교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장례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 한신교회, 성민교회, 강남교회, 지구촌교회, 주님의교회 등 30여 개 교회가 사설납골당에 전용관을 구비하여 교인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백** 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 11월 예배당 지하에 1,5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관을 설치 운영하여 장례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설추모관내 교회전용관)



(백** 교회 입구 및 내부)

2. 우리는 왜? 추모 시설을 기피할까요?

- 유골의 변질과 부패로 별레가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추모관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사설 봉안당의 냄새(방향제)와 산만함만을 생각하십니까?
- 꼭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으면 생활에 불이익을 초래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3. 우리 교회 추모시설을 어떻게 짓는다면~~~

-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있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 유골의 부패와 변질 없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에 교인들과 함께 추도에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존의 사설봉안당과는 차별화된 우리 교회만의 맛을 낼 수 있으며 건축비가 경제적이며 관리운영비가 저렴하면 좋겠습니다.

4. 우리 교회 추모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 종교시설 내 추모관 설치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 우리교회 내 또는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추모관도 함께 설계가 가능합니다.
- 주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봉안당 조성 비용과 운영자금의 조달을 여러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해소할 수 있습니다.

5. 전용 추모관 건축의 기대효과!

- 개척교회는 교회건축 시 추모관의 선 분양을 통하여 건축비 조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주변의 새로운 사람들도 전도되어 많이 늘어나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기존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교인들에게는 좀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한다면 어찌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것으로 검토하여 받아들이고 교회를 강건하게 교인들의 삶을 좀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장묘문화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타 종교보다 봉안당 인·허가 용이한 수련원이나 기도원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교회 전용추모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美空 Space Aesthetics 공간미학

K 코리아에프엔디 F&D Korea Funeral & Development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3
대표전화 : 1899-1659 / FAX 032)512-0925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65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총회일자 : 2016년 5월 16일(월)
2. 등 록 : 5월 16일(월) 오전 11시
3. 개회예배 : 5월 16일(월) 오후 1시
4. 사무총회 : 5월 16일(월) 오후 2시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2016년 4월 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진 등 용

5월 15일(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시다!!!

- 총 회 주 일 _ 2016년 5월 15일(5월 셋째주일)
- 대 상 _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지방회 회원교회
- 총회주일안내 _ 전국 각 교회에서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 주보 등을 활용해 교단의 성령충만한 사역 운동을 알리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활용토록 함.
- 헌 금 구 분 _ 특별헌금을 교회 형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8033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 사 진 등 용
총 무 목 사 김 병 목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http://www.aogk.org>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email:aogk@aogk.org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신입생
- ⑥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총회목회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